

신안군, 지구촌 섬문화 예술로 잇는다

군, 네덜란드 미술기관 카스코와 섬 문화예술증진 MOU
국제 예술활동 협력 등 섬 문화 다양성네트워크 구축 확대

1004개의 섬을 보유한 신안군이 섬 고유의 문화를 품고 있는 지구촌 섬들과 문화예술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미술기관 카스코(CASCO ART INSTITUTE)와 '초세계화시대 섬 문화예술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안군은 카스코의 초국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구촌 섬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또 나라와 나라, 섬과 섬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의 섬과 해외 섬에서 예술활동 및 예술 작품 생산, 컬렉션(collection)을 통해 이어가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협력 전시, 섬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가입 등 섬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센터 설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스코는 1990년 네덜란드 유폴레히트

에 독립 비영리 미술기관으로 설립됐다. '커머스' (공유재 또는 공통)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예술 발전을 이끄는 현대예술 기관이다.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3년간 집, 가사노동, 마을공동체 변화 추이와 협동적 집단 활동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로 '대 가사혁명'을 실행했다. 100여명의 지역, 국내·외 예술가, 디자이너, 이론가, 가사노동자, 노동조합, 액티비스트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런던과 데리(북아일랜드), 뢰빌라나(슬로베니아), 스톡홀름(스웨덴) 등에서 순회 전시를 했다.

유럽문화재단의 후원과 유럽연합(EU)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유럽 내 유사기관 6곳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운영했고, 이후 네덜란드 미술평론가협회에서 올해의 미술기관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신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미술기관 카스코와 '초세계화시대 섬 문화예술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지난 2008년 카스코의 3대 관장으로 취임한 최빛나 관장은 해외 미술 기관 내 유일한 한국인 기관장이다. 최 관장은 세계적인 명성이 높은 네덜란드 큐레이터 교육기관인 '더 아펠'(De Appel)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뒤 2016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신안군의 역점사업인 '1도(島) 1뮤지엄(Museum)' 사업과 더불어 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다도해서 희귀식물 '백서향' 군락지 첫 발견

유전자원 수집 자생지 복원·서식지 보전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다도해국립공원 내에서 토종 자생식물인 백서향(사진) 군락지가 처음으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남부지방에서 드물게 자라는 토종 자생식물 백서향(Daphne kiusiana Miq.) 군락지를 최초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서향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남부지방에서 자란다.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1m 높이의 키 작은 나무로 수명은 30여년이다. 꽃은 2~3월에 피고 흰색이며 열매는 8mm 크기의 주홍색 알 모양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에서 서식하며



내륙에서는 드물게 관찰되는 종이다.

이번 생태계 조사에서 확인된 백서향은

키와 몸피가 작고 달걀형의 열매가 있다. 일정한 구역 내 띄엄띄엄 흩어져 서식하는 것도 특징이다.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서식개체가 적은 백서향의 군락지를 다도해국립공원 내에서 처음 발견했다"며 "고유종 식물인 백서향의 유전자원을 수집해 자생지 복원과 서식지 보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완도 노두마을 25억 들여 정주여건 개선

골목길 확장·소공원 조성·하수도 정비 등 추진

완도군 완도읍 노두마을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완도읍 노두마을이 선정돼 3년간 국비 등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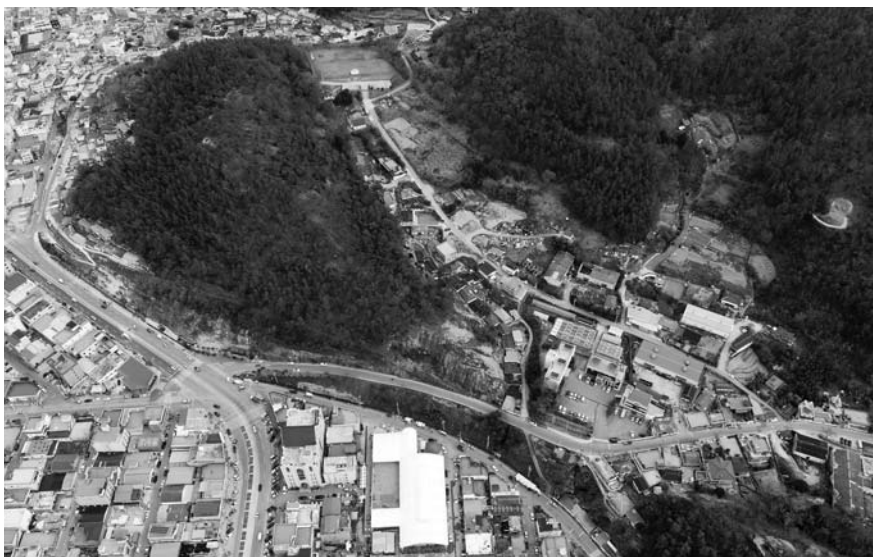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골목 확장, 보행 환경개선, 생

활오수 악취 공간 하수도 정비, 이웃 마을 연결 소통길 조성 등 생활복지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전시·힐링 콘텐츠 사업 등을 펼 계획이다.

완도읍 노두마을에서 5일 시장으로 내려오는 생활오수 악취 공간을 하수도 정비를 통해 소공원으로도 조성한다.

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심한 악취와 생활쓰레기, 모기·파리 등 해충으로 고충을 겪은 주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도읍 노두마을.

기자 노트

공원일몰제 코앞인데...목포시 재원대책은

다음달 1일 시행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목포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다수의 공익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공원이 해제돼 땅 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인 반면, 도시의 허파인 숲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잃게 된다.

목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년 넘도록 미집행한 유달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12곳, 319만4635㎡를 공원 지정에서 해제한다.

목포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전체 예산 264억원을 들여 일몰 예정인 12개 공원 가운데 양을근린공원 등 3곳의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재원 마련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최근반부패연대가 발표한 지난해 목포시 재정은 자체 수입 1414억원, 예산 규모 6554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36위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마련과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다. 재정 확보가 도시공원 유지의 최대 관건이다.



박종배 제2사회부 부장

산정근린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과 아파트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총 47만1457㎡ 중 74%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6%는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고 29층,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는 교동 제2사회부 부장

망권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비교하면 공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목포시 관계자는 "단순 수치 비교로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다. 산정공원 지형 특성상 구릉지 형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수차례 공청회와 주민 의견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다수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공색한 변명오박에 들리지 않는다.

목포시의 도시숲 보존 정책은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아파트 개발이 전부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 나머지 8개 공원은 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pjb@kwangju.co.kr

목포해수청, 연안여객터미널 등 87곳 안전 진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등 87곳에 대해 '2020년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목포연안여객터미널, 킨메리호 등 여객선 67척, 영광 계마항여객부두 등 여객시설 15곳, 현대오일뱅크 물류센터 등 위험물화역시설 4곳 등이다.

안전 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기간을 정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구조적 결함 등 보수·보강 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사용 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정밀 안전점검을 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전남형 긴급생활비' 7900가구 25억 지급

진도군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25억원을 7900여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1만 1300여가구로 군은 신청 가구의 98% (1만1100여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진도군은 긴급생활비로 2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90% 상당인 25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재산액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가구에 대해 일반 재산 중 토지 재산을

제조사 후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151가구를 구제해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은 방문 접수와 함께 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의 신속한 지급·적합심사를 위해 주무과인 주민복지과 직원 5명과 읍면 복지 공무원 21명 등 총 26명을 조사 인력으로 투입했다.

진도군은 전남도 긴급생계비와 연계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12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